

호라이즌 유럽 관련 자주묻는질문 (FAQ)

<2024.12.18. 한-EU 연구협력센터>

해당 문서는 2024년 12월 10일 한-EU 연구협력센터 (KERCO)가 개최한 '호라이즌 유럽 필라 2 참여방법 웨비나'에서 진행된 Q&A 를 기반으로 합니다. 해당 웨비나의 패널분들께서 답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KERCO 에서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

- **한국은 2025년 공고(Call)부터 준회원국 참여가 확정이 된 건가요?**
 - ▶ 현재 가입협상은 2025년도 Call 부터 한국이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절차상 가입 협정서에 대한 공식 서명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협정 서명은 향후 몇 개월안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실상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2024년 현재 EU Funding & Tenders Portal 에 올라와있는 Call 에 대해 컨소시엄만 형성할 수 있다면 한국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 ▶ 한국도 참여할 수 있으나, 제 3 국 자격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즉, EU 연구비를 지원받는 수혜자(beneficiary)로 참여할 수 없으며, 자체적으로 연구비를 조달해야 합니다.
 - ▶ 2025년 이후 부터는 우리나라도 호라이즌 유럽 필라 2 준회원국이 되어 호라이즌 유럽 예산으로부터 직접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다른 EU 회원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필라 2 컨소시엄에 코디네이터(coordinator) 또는 참가자(participant) 등 수혜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열려있는 공고(call)이 2024년도 9월에 개시되어 2025년도 마감인데도 2024년도 공고에 해당되는 건가요? 2025년부터는 한국이 준회원국으로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 ▶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은 2025년도 공고부터만 해당됩니다. 즉, 공고 번호에 2025 라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고는 2024년도 공고이므로 한국 기관은 준회원국 자격으로 참여는 불가하며, 제 3 국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연구 공고가 2025년도에 마감되었거나, 2025년도에도 과제가 진행중이라고 해서 해당 과제에 한국이 준회원국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필라 1 의 경우 한국에서 호스트가 가능한가요?**

- ▶ 현재 우리나라의 준회원국 가입은 필라 2 에만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필라 1 과제는 제 3 국에서 호스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MSCA Staff Exchange, MSCA Postdoctoral Fellowship- Global Fellowship 등 일부 사업의 경우 한국 기관이 유럽 연구자를 일정 기간 '호스트'하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 **"호라이즌 유럽 과제"를 수행하게되면 3 책 5 공에 포함되는건지요?**

- ▶ 호라이즌 유럽은 EU 사업으로 전적으로 EU 에서 관리됩니다. 따라서 국내 3 책 5 공 규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한-EU 협력진흥사업 (HE 관련 국내지원사업)**

●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이 되면 IITP, NRF, KIAT 의 Horizon 관련 사업 등 기존의 다른 국내 지원 사업들은 종료되는 건가요?**

- ▶ 호라이즌 유럽과 관련하여 한국연구재단(NRF)에서는 (1)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 (2)한-EU 협력진흥사업을 지원중입니다. 준회원국 가입 후에도 제 3 국으로서 참여하는 필라 1, 2 과제들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한-EU 협력진흥사업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 ▶ 2025 년 한-EU 협력진흥사업은 과기부 내년 계획에 따라, 새로이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 ▶ 2025 년도 1 분기 정도 안에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나, 세부 정확한 내용은 공고가 나오면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한국연구재단에 신청부터 선정까지 일반적으로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 ▶ 협력진흥사업은 신청부터 최종 선정까지 1 개월에서 1 개월 반 안에 진행이 됩니다.

● **한-EU 협력진흥사업의 최종결과물은 어떤 방식으로 평가받나요?**

- ▶ 일반적으로 계획서의 내용을 토대로 정성적 평가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대개 서면평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 **한-EU 협력진흥사업은 3 책 5 공에 포함되나요?**

- ▶ 그리고 2024 년도 한-EU 협력진흥사업 기준으로, 본 사업은 소액 공동연구(연 6 천만원 이하) 과제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제외입니다.

● **문화/창의성/포용적사회를 다루는 호라이즌 유럽 필라 2 클러스터 2 연구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가요?**

- ▶ 한국 연구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라면 문화/창의성 분야에서도 호라이즌 유럽에 신청하기 위해 한-EU 협력진흥사업을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협력진흥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면, 실 호라이즌 유럽 지원시 점수가 더 높아지는 등 추가 점수가 있나요?**

- ▶ 협력진흥사업 같은 경우는 호라이즌 유럽과는 별개로 우리나라에서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분들이 보다 좋은 조건에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호라이즌 유럽 지원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 국가연락관 (NCP)

● **한국의 NCP 는 누구인가요? 한국연구재단(NRF)이 한국 NCP 인가요?**

- ▶ 한국 NCP 는 현재 공고를 통해 재구성 중이며, NRF 에서도 NCP 코디네이터 총괄 역할을 함께 수행할 예정입니다.

● **NCP 는 누가 할 수 있나요? 국내 연구자도 NCP 지원이 가능한가요? 연구재단의 전문위원처럼 연구자 중에 누군가를 선임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구재단의 전임 연구원께서 하시나요?**

- ▶ NCP 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합니다. 호라이즌 유럽 주요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사업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이라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NCP 활동지원사업 신청자격은 공모 공고문의 p4 에서 세부 내용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국내 연구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NCP 수행자는 호라이즌 유럽 과제 수행이 제한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https://www.nrf.re.kr/biz/notice/view?biz_not_gubn=guide&menu_no=362&page=1&nts_no=228299&biz_no=294&search_type=NTS_TITLE&search_keyword1=NCP

● **NCP 에 선정될 경우 해외로 파견을 가는 것인가요?**

- ▶ NCP 에 선발될 경우,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활동을 원하실 경우 NCP 가 기존 소속된 기관과의 협의가 된다는 가정 하에 해외 활동도 가능하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는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과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NCP 는 매년 10 월에 접수를 받는건가요?**

- ▶ NCP 는 현재 금번 선발외에 별도로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NCP 에 대한 국내 수요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추가로 선정하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 **다른 나라의 NCP 는 누구인가요? 예를 들어, 스웨덴과 영국의 NCP 는 누구인가요?**

- ▶ 유럽연합이 운영하는 아래 포털에서 국가별, 분야별 NCP 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 <https://ec.europa.eu/info/funding-tenders/opportunities/portal/screen/support/ncp>

■ 호라이즌 유럽

● **호라이즌 유럽 과제는 RFP 가 제시되는 Top-down 형태인가요? 아니면, 큰 주제 하에서 연구자가 제안하는 Bottom-up 형태인가요?**

- ▶ 호라이즌 유럽 필라 2 의 모든 과제는 유럽연합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글로벌 사회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원받는 연구가 다루어야 할 기대파급효과(expected impact), 기대성과(expected outcome), 연구 주제(topic) 범위(scope) 등 모든 세부 내용이 탐다운 형태로 제시됩니다.
- ▶ 다만, 제시되는 목적 및 기대효과가 RFP 수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며, 해당하는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자 컨소시엄 내 협의를 통해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 전적으로 Bottom-Up 으로 이루어지는 호라이즌 유럽 사업으로는 우수 연구자의 기초 연구를 지원하는 필라 1 의 유럽연구위원회(ERC)가 있습니다.

● **필라 1 ERC 는 보통 개인 과제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필라 1 도 한국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 참여가 가능한지요?**

- ▶ Pillar1 은 준회원국 대상 분야가 아니므로 연구책임자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Synergy Grant 와 같은 일부 프로그램은 제 3 국 연구자도 PI 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MSCA 사업 역시 연구자 개인 자격으로 제 3 국 연구자가 참여가 가능합니다.

- ▶ 필라 1 에서 한국 개인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참여 가능한 부분은 ERC Synergy Grant 가 있습니다. 해당 그랜트는 2-4 명의 PI 로 구성된 연구팀을 지원하며, PI 중 한 명은 제 3 국도 참여 가능합니다.
- ▶ 필라 1 에서 한국 개인 연구자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MSCA Postdoctoral Fellowships 이 있습니다. 한국인 연구자도 유럽의 호스트 기관을 찾아 MSCA PF 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ERC 와 같은 프로그램은 연구자의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소속 기관을 기반으로 하므로, 한국인 연구자도 유럽 기관에 소속된 경우 ERC 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한국 연구자가 Pilar I 에 공동연구자로 지원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제공한 펀딩에서 한국측 연구자 연구비가 부담이 되는건가요?**

- ▶ 그렇습니다. 한국은 필라 1 준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자체 연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 KERCO 에서 발간한 호라이즌 유럽 한국 참여 프로젝트 사례집에는 필라 1 MSCA-RISE 프로젝트 참여 사례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
- ▶ <https://k-erc.eu/2024/12/publication/22360/>

● **한국과 EU 중 어떤 기관에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나요?**

- ▶ 호라이즌 유럽의 경우 참가자들은 EU 로 부터 펀딩을 받게 됩니다.

● **아직 커리어 초기인 연구자(석사 or 박사 초기)들은 어떤 방법으로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 ▶ 커리어 초기 연구자의 경우 호라이즌 유럽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라이즌 유럽이 지원하는 필라 1 사업의 연구비는 각 기관 및 연구자가 박사과정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ERC Consolidator Grants 는 2024 년도 328 명의 연구원에게 총 6 억 7,800 만 유로를 지원하였는데, 이는 호스트 기관의 박사후연구원, 박사과정생 및 기타 직원을 위해 약 2,75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https://k-erc.eu/2024/12/europe-trends/22343/>)
- ▶ 이렇게 EU 연구비로 만들어지는 모든 일자리(채용 기회)는 EURAXESS 포털을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석박사생은 EURAXESS 를 통해 이러한 기회를 잘 모색함으로써 호라이즌 유럽 과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uraxess.ec.europa.eu/worldwide/south-korea>)

- ▶ KERCO 웹사이트의 EU Research Career 페이지나, EURAXESS Korea 페이지 등을 확인하시면 도움되는 자료를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필라 2 파트너 탐색 및 컨소시엄 참여 과정

- **현실적으로 EU의 연구자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지 않으면 여러기관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요?**
 - ▶ 말씀하신대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유럽측 연구자와 새로이 네트워크를 모색하실 경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호라이즌 유럽 과제 공고가 나오면, Partner search 라는 게시판이 함께 활성화되는데, 이는 해당 공고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또는 기관이 자신의 연구 분야와 관심있는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 간 연락을 취하는 방법이 있으며, NCP 를 통해 파트너를 모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 아울러, EU 에서는 다양한 네트워킹 및 브로커리지 행사를 개최하는 데, 이에 참여하여 협력 연구자를 찾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한국이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EU 각국에서 협력 문의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한국이라는 새로운 우수 협력 연구자 pool 이 늘어남에 따른 EU 측 연구자의 관심도가 확연히 증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이하빈 교수: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EU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코디네이터로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고싶어서 한 게 아니라 막상 EU 펀딩을 통해서 연구를 하려다 보니 처음에는 아는 사람도 없었고 어떻게 컨소시엄에 끼야할지를 잘 몰라서 아예 코디네이터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디어를 적어서 Partner Search 에 참여할 파트너를 구한다고 올렸더니 20~30 개 정도의 요청을 받게 되었고, 그 중에서 파트너를 선정하여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EU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파트너도 있어서 그들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을 또 알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첫 프로젝트를 코디네이팅 한 것이 스노우볼 효과가 되어 더 많은 파트너를 알게 되고, 이들과 또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Partner Search 페이지 링크: <https://ec.europa.eu/info/funding-tenders/opportunities/portal/screen/how-to-participate/partner-search?isExactMatch=true&frameworkProgramme=43108390&type=ORGANISATION,PERSO N&order=DESC&pageNumber=1&pageSize=50&sortBy=lastModified>)

● **EU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공동연구하는것에 어떠한 Merit 을 느낄 수 있을까요?**

- ▶ 한국이 컨소시엄에 포함될 경우같은 점수를 받은 다른 컨소시엄보다 지리적 다양성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새롭게 준회원국으로 가입했다는 점에서 한국 기관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같은 평가 점수를 받은 다른 컨소시엄에 비해 선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유럽 파트너 교수가 작년에 공식적으로는 퇴직을 하였으나 연구실은 여전히 똑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파트너의 자격 요건 중 전임교수여야 될 필요가 있는지요? 지금 명예교수나 겸임교수 직함을 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 ▶ 명예교수나 겸임교수가 공식적으로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한,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연구자가 여전히 EC 와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고 모든 보고서(deliverable)을 정해진 시간 안에 완료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 **윤태현 교수님의 경우 필라 2 과제 참여에 앞서 MCSA 과제에 먼저 참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때 유럽내 파트너들과 어떻게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경험을 공유해주실수 있을까요?**

- ▶ MSCA 컨소시엄에 참여를 했을 때 거기에도 많은 기관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서로 처음에는 잘 몰랐으나, Kick off 미팅이라던가 Zoom 화상회의를 통해 서로가 어떤 연구를 하는 기관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프로젝트에 소속해 있다보니 '우린 이런 것을 하는 데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니 한 번 서로 방문해서 알아보자'라는 식으로 서로에게 접근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룩셈부르크 기관 같은 경우도 이전에 회의에서 잠깐 본적은 있었지만 친하진 않았는데, 이번 CHIASMA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서로 니즈가 맞아 적극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 **호라이즌 참여 경험이 없는 새로운 기관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경우 컨소시엄 전체에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여러 업무를 지원해주고 가이드해주어야 하는 등) 이에 대해 유럽 기관 입장에서는 새로운 한국 파트너를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낄까요?**

- ▶ 많은 경우, 신청자들은 유럽 프로젝트에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영국에 있는 기관 및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대학과 협력한 경험이 있는데,

이들은 전혀 호라이즌 참여 경험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들에게 적절한 질문을 던져 연구 아이디어와 목표를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해야했고, 여러 논의를 거쳤습니다. 한 번은 오프라인 미팅을 주선하여 모든 파트너를 한 자리에 모아 논의한 적도 있습니다. 예산 측면을 제외하고 이러한 과정은 그리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파트너의 전문성입니다.

● **파트너를 탐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팁은 무엇인가요?**

- ▶ 링크드인이나 구글 스콜라와 같은 온라인 도구를 통해 자신의 프로필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자신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유럽 파트너들이 본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여러 국제 학회에 참여해 연결점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파트너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자신만의 것을 어필하면 좋을 것입니다.
- ▶ 더불어, 온라인을 통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들의 유럽 파트너를 잘 파악하고 연락하고자 하는 기관의 Research Support Office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필라 2 제안서 작성 및 신청 절차**

● **HE 과제 제안서의 분량이 궁금합니다. program call 별로 다른 것인지, 표준양식이 있고 분량의 제한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표와 글로만 기술하는 형태인지, 도면 등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일반적으로 필라 2 공고는 최대 45 페이지 분량의 표준 신청 양식을 사용합니다. 신청자가 반드시 채워넣어야 하는 일부 주어진 양식을 제외하면 신청자는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적 도구(표, 도식, 색칠된 박스 등)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물론, 최대 분량이 45 페이지를 넘어가는 럼섬 펀딩(Lump-sum funding)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 **호라이즌 유럽 과제 제안서 심사는 전적으로 유럽연합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1 차 사전 심사가 이뤄지나요?**

- ▶ 호라이즌 유럽 과제의 경우 제안서 심사를 포함한 모든 절차는 전적으로 EU 측에서 이루어집니다.

● **제안서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 ▶ 신청 마감일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EU Funding & Tenders 포털에서 개시 예정인 공고와, 진행중인 공고, 그리고 마감된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https://ec.europa.eu/info/funding-tenders/opportunities/portal/screen/home>

● **산단에서 EU funding 을 관리하거나 연구자가 제안서 제출하기 위해서 EU Funding and Tenders 포털을 이용해야 하는데, 사이트 매뉴얼 등을 한국어로 제공받을 수 있나요?**

- ▶ EU Funding & Tenders Portal 사용방법에 대한 영어 온라인 매뉴얼은 다음 링크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ebgate.ec.europa.eu/funding-tenders-opportunities/display/OM/Online+Manual>
- ▶ 한국어 자료로는 EU 호라이즌 유럽과 국가혁신법을 비교한 분석 연구 보고서와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rf.re.kr/cms/board/library/view?menu_no=419&nts_no=207226

● **Proposal 은 컨소시움 EU 파트너가 주로 작성하나요? 아니면 한국 파트너가 작성하나요?**

- ▶ 일반적으로 Proposal 을 작성할 때는 ‘Call writing’ 팀을 구성합니다. 주로 2-3 명의 담당자가 매주 만나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각 파트너들과 협의를 합니다. 이를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관성 및 짜임새가 잘 맞도록 조정합니다. 이를 위해서 Grant Advisor, Research Support Office, Call Writing Team 등이 돕기도 합니다.
- ▶ Proposal 은 컨소시움이 모두 함께 작성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과정은 컨소시움을 총괄하는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의 주도 하에 이루어집니다. 컨소시움의 각 구성원은 자신이 수행하게 될 세부 연구 과제에 대해 작성하도록 요청되며, 이러한 모든 내용을 코디네이터가 취합하고 정리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 ▶ 많은 경우 컨소시움 회의의 일정 조율, 회의록 작성 및 공유,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을 위한 외부 전문 컨설턴트가 고용되기도 합니다.

● **만약 호라이즌 유럽 과제 공고에 선정이 되면 한국에서 작성해야 할 문서들이 있을까요?**

- ▶ 호라이즌 유럽에 선정이 되시면 EU 의 행정절차에 따라 협약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참여하신 컨소시움의 과제 내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공고에 협약서(GA) 양식이 함께 안내되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컨소시움 구성원 간의 컨소시움 협약서(CA)도 작성하게 됩니다.

● **한 기관이나 연구자가 같은 공고에서 여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한 제안서에서는 코디네이터로, 또 다른 신청서에서는 일반 참가자 또는 파트너로 등)**

- ▶ 한 콜에서 여러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본인이 참여중인 두 컨소시엄이 서로 경쟁해야 하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콜에 배정된 총 예산에 따라 선정되는 과제 수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신이 소속된 두 컨소시엄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 한편, 한 연구자가 호라이즌 유럽 내의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는 각 프로젝트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를 고려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 **컨소시엄에 세 개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신청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모든 참여 국가가 같은 제안서 양식을 사용하나요? 아니면 국가별로 다른 양식을 쓰나요? 각 국가 기관은 제안서를 자국의 연구비 지원 기관에 제출하나요?**

- ▶ 하나의 컨소시엄은 하나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연구비 관리 당국(유럽연합측)에 하나의 제안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의 주도 하에 이루어집니다.

● **제출한 과제의 심사는 누가 담당하나요? 탈락했을 때 리뷰를 받나요?**

- ▶ 제출된 제안서는 집행위원회가 선정한 독립 전문가에 의해 평가됩니다. 평가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에 따라 선정됩니다.
- ▶ 제안서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는 제안서의 강점 및 약점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개선 방안이 적힌 'Evaluation Summary Report (ESR)'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는 제안서를 수정하여 향후 개시되는 공고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년도에 동일한 연구 주제에 대한 공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특히 보건 클러스터에서 임상 데이터 등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절차는 국가 또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 제안서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 ▶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에는 지원자가 데이터 관리 계획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섹션이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 양식 Part A의 윤리 섹션에서는 어떠한 절차 및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필라 2 컨소시엄 구성 조건 및 참여 적격 기준

- **컨소시엄 구성 시 최소 3 개 기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3 개 기관이 모두 다른 국가여야 하나요? 아니면 동일 국가에서 2 개의 서로 다른 기관이 참여해도 2 개 기관으로 인정받나요?**
- ▶ 컨소시엄은 최소 세 개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 파트너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세 개의 국가는 EU 회원국이거나 준회원국이어야 하며, 이 중 하나는 반드시 EU 회원국이어야 합니다. 즉, 각각 다른 EU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 국가에 설립된 세 개의 법인이 있어야 하며, 하나 이상은 EU 회원국 기관이어야 합니다.
- **한국 기관도 프로젝트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나요? EU 측이 코디네이터를 맡는 것과 한국이 코디네이터를 하는 것 중 어떤 경우가 유리한가요?**
- ▶ 한국이 준회원국이 되면 한국 기관도 호라이즌 유럽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호라이즌 유럽의 대규모 컨소시엄을 총괄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상당한 업무 부담을 요구합니다. 누가 코디네이터를 맡느냐는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관리한 경험이 있는지 관리할 역량이 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유럽 파트너를 관리해야 하는 경우에 한국에 위치한 기관이 코디네이터를 맡을 경우 시간적 물리적 거리 및 서로 다른 관리 시스템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NGO 나 산업 파트너 등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 ▶ 이는 연구 주제(topic)마다 다릅니다. 일부 공고의 경우 중소기업의 참여를 강력히 장려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경우에는 NGP의 참여가 굉장히 필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과제 공고를 잘 살펴보고 NGO 나 산업파트너 등을 컨소시엄에 포함하는 것이 과제 목적에 적합한지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 ▶ 특히, 콜에서 특정 국가/기관의 참여가 장려(encouraged)된다고 명시된 경우, 이는 그들의 참여가 필요하다(need)는 것으로 여겨도 무방합니다.
- ▶ 보건 클러스터의 경우 산업과 환자 조직(NGO), 병원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장려됩니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산업의 기술력이 필요하며,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된 지식을 배포하는 데 NGO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대부분 참여 기관이 대학 및 연구소 같고, 기업체가 없는것 같은데 기업체의 참여제한이 있습니까?**

- ▶ 기업체의 참여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SME)참여를 권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Call 마다 구체적으로 특정 산업체들의 참여 등을 권장하기도 하므로 Call 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각 컨소시엄에는 대략적으로 몇 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각 기관에는 얼마의 연구비가 할당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 윤태현 교수: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CHIASMA 컨소시엄은 20 여개 기관이 참여하였고, 연구비는 코디네이터나 WP 리더 등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기관에 많이 분배 됩니다. 저희 컨소시엄은 참여기관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 평균적으로 13 개 정도 기관이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 ▶ 현재까지 호라이즌 유럽에서 한국 기관이 참여한 필라 2 프로젝트의 컨소시엄 구성 개요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EU 에서 지원하는 연구 예산은 코디네이터(coordinator)와 참여기관(participants)만이 지급받는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https://k-erc.eu/2024/08/publication/20149/>

● **컨소시엄 내에 국가 수가 제안 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나요? 최소 3 개 국가 포함 기준을 넘어서 성공적인 제안을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국가 수는 얼마나 되나요?**

- ▶ 과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나에 따라 다릅니다. 과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파트너가 필요한지가 더욱 중요하며, 파트너 수가 많다고 해서 성공률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 **호라이즌 유럽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노르웨이의 경우는 EU 로 간주되나요?**

- ▶ 노르웨이의 경우 준회원국으로 간주됩니다. 27 개 EU 회원국 만이 정회원국으로 인정됩니다. 준회원국 목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https://ec.europa.eu/info/funding-tenders/opportunities/docs/2021-2027/common/guidance/list-3rd-country-participation_horizon-euratom_en.pdf
- **2025 년도에 스위스와 영국 같은 경우 EU 호라이즌 컨소시엄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 ▶ 물론 두 국가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영국은 공식적으로 준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스위스는 현재 제 3 국으로 준회원국 가입을 아직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위스 정부가 스위스 참가자들을 위한 연구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 3 국으로서도 원활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연구팀도 파트너가 될 수 있나요?**
 - ▶ 미국은 현재 제 3 국이므로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에 파트너 기관(associated partners)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자체 연구비 조달을 통해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한편, 미국은 제 3 국 중에서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입니다.
 - ▶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strategy/strategy-research-and-innovation/europe-world/international-cooperation/bilateral-cooperation-science-and-technology-agreements-non-eu-countries/united-states_en#cooperation-and-funding-opportunities

■ 필라 2 워크프로그램 및 사업 공고

- **각 Pillar II 클러스터 마다 2025 년도에는 언제 어떤 토픽들로 outline 공고가 게시되고 언제 actual call for proposal 이 진행될 예정인가요?**
 - ▶ 호라이즌 유럽의 분야별 주요 사업의 공고 내용과 일정은 워크프로그램(Work Programme)을 통해서 제시됩니다. 보통 워크프로그램은 2-3 년 단위로 제시되나, 2025 년도 워크프로그램의 경우 1 년 단위로 제시될 예정입니다.
 - ▶ 2025 년도 공고는 2025 년 3 월-4 월 공개될 예정이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공개 유출된 2025 년도 워크프로그램 초안 문서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초안 문서를 통해 일부 공고의 진행 예정 일정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 <https://sciencebusiness.net/horizon-papers>

■ 필라 2 프로젝트 수행 및 예산 집행 등

- **과제 선정후 운영할 때 국내 연구자의 연구비는 어떻게 운용할 수 있나요? 기존 국내 과제와 비슷하게 연구재단에서 담당하고, 학교면 학교산단에서 관리하나요?**
 - ▶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EU) 사업이므로 한국연구재단이 아닌, EU 에서 직접 연구비를 제공하며, 연구비 관리는 일반적으로 산단에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연구성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매년 결과 보고나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성실실패와 같은 게 인정이 되는지요?**
 - ▶ Annual Review 를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 호라이즌 유럽에서 프로젝트 결과는 주기적인 기술적/재정적 보고서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는 주로 18 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프로젝트 종료 시에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고서에는 프로젝트의 진행 현황, 보고서(deliverables), 리소스 사용에 대한 업데이트가 포함됩니다. 프로젝트의 마주하는 이슈에 대해서 이러한 보고서에 기술할 수 있으며, 호라이즌 유럽은 모든 프로젝트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였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산 집행 기준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한국내 예산집행 방식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 ▶ EU 의 자체 예산 집행 기준은 EU 재정 규정, 그랜트 협약서(아래 링크 문서의 챗터 3 참조)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https://ec.europa.eu/info/funding-tenders/opportunities/docs/2021-2027/common/guidance/aga_en.pdf
- **What's the unit cost per researcher in Western EU, Korea and China?**
 - ▶ the unit cost is institute specific
 - ▶ 호라이즌 유럽 인건비 단위 비용 절차 https://ec.europa.eu/info/funding-tenders/opportunities/docs/2021-2027/horizon/guidance/personnel-unit-cost-procedure_he_en.pdf
 - ▶ 다음 링크는 인건비 계산을 위한 도구입니다. <https://ec.europa.eu/info/funding-tenders/opportunities/portal/screen/programmes/horizon/personnel-unit-costs/unit-cost-wizard>

- ▶ 호라이즌 유럽 럽섬 펀딩 인건비 대시보드에서는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한 국가별/기관유형별 연구자 인건비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c.europa.eu/info/funding-tenders/opportunities/portal/screen/programmes/horizon/lump-sum/dashboard>

● **Horizon Europe 사업 참여는 EC의 규정에 따라 EC의 관리를 받게 되는 거고, 혁신법, 산업기술혁신법, 방송통신기술개발법 등 국내 법령의 적용이나 국내 전문기관의 관리는 되지 않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Horizon Europe 과제 참여시 인건비, 인센티브, 참여율, 간접비 등의 규정이 한국 규정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EC 기준이 우선인가요? 그리고 정산주체는 어디인가요?**

- ▶ 호라이즌 유럽 사업의 경우 EU 연구비를 통해 진행되며 정산 주체 역시 EU 이므로 과제에 참여하고 EU로부터 연구비를 수혜받는 모든 법인은 EU의 호라이즌 유럽 규정(regulation)의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이에는 펀딩 적격 기준, 재정 및 보고 의무, 연구 결과 배포 및 활용 의무, 데이터 보호 규칙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호라이즌 유럽 규정이나 협약서(Grant Agreemen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수령한 연구비는 협약서에 적힌 적격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랜트 협약서 설명 문서 한글본: <https://k-erc.eu/wp-content/uploads/2023/07/KERC-AGA-V0.2-Draft-%ED%95%9C%EA%B8%80-%EB%B2%88%EC%97%AD%EB%B3%B8.pdf>)
- ▶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수혜자는 모든 협약서의 의무와 해당 EU 국제법 및 국내법의 모든 조항(기본권, 가치 및 윤리 원칙과 같은 일반 원칙 포함)을 준수하며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 수혜자는 특히, 프로젝트의 개인 업무에 적용되는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고, 연구 수행자는 자신이 있는 국가법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 활동과 관련된 세금 및 사회적 의무를 충족해야 하며, 다른 국가에서 일부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그 국가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